

# 다니엘 다르코 박사, 감옥서신, 11차, 복음에 합당한 행실, 빌립보서 1:26-2:5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감옥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복음에 합당한 행실, 빌립보서 1:26-2:5입니다.

감옥서신에 대한 성경 연구 강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훌륭한 책 중 하나입니다. 왜 빌립보서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책에서 바울 서신 중에서 기쁨, 기뻐하다와 같은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애정 어린, 사랑받는, 찬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모든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좋아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가 쓴 편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좋습니다. 와우.

감옥에서의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여러 가지 압박을 겪고 있고 심지어 그를 걱정하는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쁜 상황에 처한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1장에서 바울이 토론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보았습니다. 기도와 감사 후에 그는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감옥에 보관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전 강의를 기억한다면 복음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감옥 간수들이 그리스도에 관해 듣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해 듣는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의

독자들이 복음이 길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른 신자들이 예수에 관해 더 많이 말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강의를 따라오셨거나 기억하셨다면, 질투와 경쟁심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에 대한 토론을 기억하실 겁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제 마음을 이해시켜줍니다. 그는 제 마음을 탐구하게 합니다.

그는 다른 교파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강력한 진술로 마무리했습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고 죽는 것은 이득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션에서, 1장 27절에서 2장 18절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행실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27절에서 30절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 구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따라 사는 삶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 주요 주제 하에서, 우리는 1장 27절에서 2장 18절까지의 논의를 네 부분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가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두고 싶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온 삶이나 복음에 합당한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첫째, 시작은 실제로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반대 속에서도 단합과 확고부동함.

그런 다음, 우리는 겸손을 통한 연대 호소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적합한 모델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2장 18절까지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서 빛나라는 바울의 호소를 살펴볼 것입니다.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읽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내가 가서 보든 떠나 있든, 여러분이 한 영과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나란히 노력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떤 일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분명한 표징이지만 여러분의 구원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갈등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다고 듣습니다.

이 구절의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 첫 번째 줄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저 안의 목사가 행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은 "오직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바울이 제안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세주로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연관되어야 하는 특정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고, 바울과 그의 독자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합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모두 합의된 행동 틀, 기독교적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한 사람들을 반영해야 할 행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근거로 그는 그들에게 합당한 삶을 살라고 촉구합니다.

그 삶은 악의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통과 반대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삶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특정 요소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언어에도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 속에서도 단합과 확고함을 살펴보자. 바울은 여기서 초점을 자신에서 청중으로 옮겨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도전한다

그들은 복음에 걸맞은 삶을 사는 시민으로서 행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어 번역에서 찾을 수 없는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행동이나 삶의 방식으로 번역하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사실, 그리스어 단어에는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어 단어는 시민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시민이 지닌 국가적 정체성에 걸맞은 시민적 책임입니다. 저는 우리가 해외에 있을 때, 우리는 미국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땅에서 왔고 용감한 자의 고향입니다. 우리는 탐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창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신의 은총에 의지하고, 그의 은총으로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잘 지낼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갑을 찬 채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지 않고, 두려움에 움츠러들며 걷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때때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할 때 미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신감이 있는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영국 친구들이 그것을 매우 회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영국인이 제 미국 동료들의 말을 듣고 관찰하는 것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보세요, 머리를 숙이고 살짝 굽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폴에게 돌아가 봅시다.

바울은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적 언어를 사용하여 말합니다. 서론에서 제가 빌립보에 살았다면 실제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던 걸 기억하세요. 그리스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빌립보는 당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민권에는 많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나 그리스 시민권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을 살펴보면, 그것은 로마 시민을 물리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입니다.

하늘의 시민권. 바울은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들이 시민으로서 행동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이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교회에서 단합된 입장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은 높은 수준의 한 영, 연결감,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의 종류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영이라는 단어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한 영으로 굳건히 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단어로 돌아갈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 성령 안에서, 아니면 연결의 관점에서 한 영 안에서의 뜻일까요? 그들은 한 마음이나 한 영혼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어 단어는 마음이나 영혼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상상해보세요. 바울은 당신의 영이 연결되고 상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은 하나의 사고방식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공유된 프레임워크, 참조 프레임,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의 언어로 요약한다면, 초점은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독교 시민권은 기독교 공동체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만약 기독교 공동체가 기독교의 시민권이 무엇인지 안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바울이 보스턴 도심, 뉴욕, 로스앤젤레스, 아크라나 런던 어딘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거대 교회를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세요.

아니요, 그는 대형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런던이든 우크라이나든 말입니다. 가정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한 정신으로 한 사고방식으로 연합하라고 도전할 때, 그는 당신이 속한 그룹에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고 그들이 빌립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그는 그들이 한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단어는 때때로 다른 영어 성경에서 나란히 번역됩니다. 와우.

바울은 교회에 고난 속에서 연합하고 위축되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줄에서 "너희의 삶의 방식, 너희의 태도, 너희의 행실이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고 말할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은 분열로 가득 찬 삶이 아닙니다. 불평과 훼손, 권력 다툼.

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늘의 시민들이 그들의 시민권을 반영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은 연합하여 일하고, 동료 시민들과 하나의 사고방식으로 일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나란히 일합니다. 그리고 고통에 관해서는, 그들은 실제로 한 사람이 홀로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유하고, 참여하고, 지원합니다. 사실, 이 특정 교회는 그것에 매우 능숙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그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도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연합. 하지만 바울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글썄요, 벤 위더링턴이 빌립보서에 대한 주석에서 인용한 짧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벤 위더링턴은 복음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패턴은 예수의 추종자들의 삶의 패턴으로 복제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이 영역에서 명확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십자가에서의 그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고통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대화의 핵심에서 한 걸음 벗어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문제 없는 기독교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고통 없는 기독교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설교자나 누군가가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어 고통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그들에게 다시 성경을 보라고 하거나 당신이 말하는 것은 성경에 없다고 상기시켜주십시오.

사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겪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요점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함께 하고 그 투쟁을 겪으면서 서로를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은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삶입니다.

그가 한 영이라고 말할 때, 나는 그 생각을 붙잡으라고 말했습니다 . 그 용어는 실제로 인간의 영이나 성령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학계에서는 여전히 이런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 단어는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할 때, 바울이 다른 곳에서 사용한 언어, 즉 성령 안에서의 교제나 성령의 능력에 의해 활력을 얻고, 능력을 얻고, 영향을 받는 일체감의 감각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교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교회가 연합하고, 목적에 따라 연합하고, 활력을 얻고, 영향을 받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 주입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것을 무시하지 않지만, 여기서 그는 한 영 안에 있는 것이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연결감, 목적의 일치, 감정과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며, 우리는 한 영 안에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저는 영어 단어 *one accord*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끔, 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혼다 아코드를 타고 함께 운전할 친구 세 명을 찾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니요. 그 한마음으로 사는 것은 한 영으로 사는 것이고, 공통의 목적, 공유된 사명, 공유된 신념, 공유된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그것은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며, 빌립보서의 일반적인 신학적 틀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저는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본문이 하나의 영으로 읽힐 가능성이 더 높지만, 공통된 목적의 측면에서 하나의 영에 매우 열려 있지만, 또한 우리가 그것을 성령을 언급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열려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한 영도 영의 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연결하는 것은 영입니다. 그 성경구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바로 그 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통 DNA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 안에 있거나 한마음으로, 한 공통 목적을 공유하는 것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언어들과 달리 영어로 설명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다른 언어들에서는 한 영, 공통 목적이라는 단어가 성령에 대한 언급과 매우,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에서, 바울은 이 모든 연합이 반대에 맞서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28절의 반대는 종종 논쟁의 주제로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바울이 선교사로 교회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유대교도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게 해주세요. 아마도 28절에서 그는 그들에게 반대자들 때문에 어떤 일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반대자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반대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잠재적 유대교도인가? 이제 우리는 3장에서 이 잠재적 유대교도들이 그렇게 큰 반대자들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왜곡하기 위해 왔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공통적인 반대 중 하나는 그들이 로마 식민지에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복음에서 멀어지라는 로마 시스템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빌립보서를 볼 때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 심각한 지속적인 반대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에 미묘한 반대가 있는 듯합니다. 그는 이 반대자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비기독교인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대인 중심 선교사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에 반박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의 반대자들은 빌립보에서 가졌던 로마 시스템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그와 동의하는 것처럼, 모든 공개 모임에서 황제를 존경했을 빌립보의 로마 시민들이 빌립보 신자들에게 특별한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kurios* , 즉 주 예수를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 에 주어졌는데 , 그는 제국의 손에 처형당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같은 투쟁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현재의 맥락은 그가 지금 제국의 포로로서 참여하고 있는 구절의 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언어의 표현을 살펴보면, 그들이 모두 이 로마 시스템을 겪고 있으며, 온갖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제가 초기 교회가 겪었던 주요 갈등 중 하나, 특히 황제 숭배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kurios kaiser, Caesar is Lord, kurios Jesus, kurios Christos, Jesus is Lord, Christ is Lord*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여기 배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압박을 받고 있어서 누군가가 “ 아니, 우리는 당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로마에 있고, 여기는 로마 식민지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는 주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압력이 이 특정 시험의 배경에 깔려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우리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런 견해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화는 우리를 1장의 끝으로 이끕니다. 바울은 교회가

악의를 품고 있든 투쟁을 하고 있든, 교회는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2장으로 넘어가고, 2장에서 그는 처음에 긴 문장을 던지고 교회가 연합을 유지해야 한다고 호소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이미 연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그는 그것을 확실히 말할 것입니다. 그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그들을 갈라놓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서로 나란히 서 있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실제로 반대에 직면하여 단결하여 함께 설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괜찮으시다면,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1장부터 27절까지, 27절에서 2장 18절까지 복음에 합당한 행실에 대한 더 광범위한 논의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차트를 드렸습니다. 또한 방금 끝낸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반대 속에서의 연합과 확고함을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몇 분 후에 다음 2장 1절에서 4절은 실제로 겸손을 통한 연합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다룰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행실에 대한 이 분석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분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2장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을 통한 연합에 대한 호소를 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시작 부분에 별표를 찍겠습니다.

겸손을 통해 연합을 호소하세요. 몇 가지 관찰을 해봅시다. 이 시험을 살펴보면, 성경이 있다면, 당신 앞에서 펼쳐 볼 수 있습니다.

ESV를 읽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읽을 때, 저는 1절에서 4절까지 주의 깊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격려가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 영에 참여하는 것이 있고, 애정과 동정이 있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뜻을 합하고, 한 생각을 가짐으로써 제 기쁨을 온전히 이루십시오.

아무 것도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남을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 각자 자기 이익만 찾지 말고 남의 이익도 찾으라. 잠깐 관찰해 보자. 영어 번역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는 2장이 조건문 if절로 시작한다는 사실인데, 내가 영어를 공부할 때만 해도 교수, 선생님들이 내게 말씀하시던 것 중 하나가 if절이었다.

좋아요. 그럼 그리스어로 조건절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if를 발견하면 거의 조건을 표현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 if절은 반드시 어떤 종류의 조건이나 불확실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런 의미에서 이 구절이 그리스어로 쓰인 방식으로 번역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의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성경을 읽을 때, 격려나 위로가 있다면, 오, 정말 위로가 있을까? 정말 격려가 있을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이 특정 구절에서 제가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라는 또 다른 점은 그것이 그리스어로 한 문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와우. 내가 숨쉬지 않고 이상한 아프리카식 악센트로 이 네 구절을 당신에게 읽어주려고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제가 바울의 숨쉬지 않는 표현이라고 부르는 긴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것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바울은 1절에서 4절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그의 기쁨을 완전하게 만들까요? 연합의 근거와 그의 기쁨을 그 완전함으로 이끄는 수단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느낄 멋진 그릇처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바울의 기쁨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첫째, 그는 말합니다. 위로가 있다면, 격려가 있다면, 사실,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번역할 방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격려가 있고 믿음의 공동체 사이에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바구니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기쁨을 완전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격려가 교회 안에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왜 연합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묻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글썄요, 그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연합은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가져야 할 모든 것입니다.

연합이 없는 공동체는 재앙적이거나 파국적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교회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연합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그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이들은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는 교회가 연합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는 진정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격려 이후로 그들은 그것을 계속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사랑에 위로가 있다면, 사랑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 긴 문장의 끝 부분에서 바울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래서, 여기서의 함축과 그가 여기서 사용하는 언어는 내면에서 나오는 깊고 깊은 애정이라는 언어입니다. 아가페 사랑,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 흥미로운 표현을 배웠는데, 풀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저, 저, 그리고 나 자신, 또는 그에 비슷한 것을 말하는데, 강조점은 저, 저, 저입니다. 저는 그것을 나주의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마음의 진실함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는 사랑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혹은 사랑의 위로가 있다면, 내가 아는 대로, 그것을 바꾸기에 담아 서랍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영의 열정을 일찍 설명하면서, 제가 이 영이라는 단어가 성령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영, 공통 목적을 의미하는지 질문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는 이것이 성령을 가리킨다는 논쟁은 없습니다. 영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다면, 알다시피, 고린도후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성령에 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성령은 그들의 삶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일할 때,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덕목을 낳는 데 도움이 된다고 실제로 말하는 사람도 이 바울입니다. 사랑은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참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유지하고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가 여기서 지적하는 네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과 동정심입니다. 이 둘을 접촉사 끝으로 연결하면, 완고한 마음과 대조되는 부드러운 마음, 냉정함과 대조됩니다. 상대방을 동정할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아시죠, 고백해야겠어요. 저는 옛날에 남자다운 남자였어요. 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남자들이 울지 않는 문화에서 자랐거든요. 남자들은 정말, 정말 강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진짜 감정적 갈등을 겪고 있는 곳에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합리화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바꾸기 위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공부했습니다.

군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 덜 걱정합니다. 그가 관창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제 계좌에 100달러밖에 없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택배 우편을 받았습니다. 가나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크로아티아의 오시예크 시에서 운명적인 오후에 드라바라는 강을 따라 산책을 했다. 드라바 강을 따라 걷다가 이 벤치를 발견하고 그 벤치에 앉았다.

아무 데서나, 아무 데서나, 이 남자의 남자, 이 완고하고 냉정한 남자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 계실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상의 아버지를 애도하는 동안에도 나와 함께 계실 분이 생각났습니다. 주기도문을 생각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운명적인 오후에, 나는 30분 동안 아기처럼 울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마치 내가 그렇게 강하고, 완고하고, 냉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던 세월 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그날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르쳐 주시려면 아버지의 죽음이 필요했다.

네, 우리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네, 저는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전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크로아티아 친구들을 공감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그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들이 전쟁 중에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들과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나는 변했다. 나는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 바울은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자비,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공감하고, 실제로 다가가서 그들의 감정과 연결되게 한다고 말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살아있게 한다면, 그들은 그의 기쁨을 완성할 것입니다. 와우. 1997년의 그 운명적인 날 이후로, 저는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무덤 앞에서 약속을 할 때 스스로를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친구들과 함께 울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연결됩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 감정적 유대감과 관계가 성장하고 있으며, 바울이 부드러운 자비와 동정심을 활동적으로 하라고 말했을 때, 또는 이러한 자질들이 교회에서 활동적이므로, 또는 당신이 그것들을 활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제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것이 확립되게 하라고 말했을 때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지역 사회에 좋습니다. 교회의 연합에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국의 학자 FF 브루스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들의 공동 생활을 유지하는 영입입니다. 공동 생활의 효과는 부드럽고 자비로운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드러움과 자비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자신의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부드러움과 연민을 경험했고, 따라서 서로에게 같은 자질을 더 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연합에서 나오는 몇 가지 구체적인 성분을 확정합니다. 같은 마음.

그리고 나는 읽었고, 같은 생각을 가짐으로써 나의 기쁨을 완성했습니다. 와우. 비슷한 생각을 가짐으로써,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짐으로써, 불필요한 의견 불일치와 불필요한 다툼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같은 마음인 것. 같은 사랑인 것. 또는 같은 사랑을 갖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할 필요가 없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갖는 것.

그렇게 하여 내 기쁨을 완성하라. 그리고 그는 내가 읽을 때, 완전한 일치와 한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계속 말한다. 사실, 그리스어 단어는 실제로 영혼의 동반자로 번역될 수 있다.

교실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현대 서양 연구에서 본 것을 상기시키려고 노력하여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마다 성경이 동성애 관계에 대해 말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그리스어 단어는 실제로 같은 마음을 가진 것, 즉 연결된 영혼을 의미하는 합성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게이이거나 사람들이 이런 의미에서 게이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알고 싶다면 명확합니다. 로마서 1장을 읽고, 디모데전서를 읽고, 고린도전서 6장을 읽어보세요. 그것이 그 주제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에서의 불화가 아니라 진정한 애정, 연합, 화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그는 연합을 훼손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들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적인 야망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을 훼손할 테니까요. 허영심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만함, 거만함, 허세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런 단어 중 하나입니다. 제가 영어를 배울 때, 허세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큰 단어예요. 친구들에게 내가 새로운 단어를 안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지금은 미국에 있고 영어권 세계에 있으니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하는 것도 멋지지 않아요.

교만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타조 목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머리가 높이 솟아 있고, 누구를 내려다보며, 타조가 되기 위해 내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자만심으로 하지 마세요. 바울은 말합니다.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공동체의 교제를 훼손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이익만 찾지 마세요.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 표현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매우 흥미롭습니다. 4절, 여러분 각자는 자기 이익만 찾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도 찾으라. 다시 말해, 여러분 자신의 이익만 찾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찾으라.

그는 다른 사람의 관심사를 찾고 자신의 관심사는 소홀히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의 관심사를 당신이 자신의 관심사를 찾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찾으십시오. 바울은 "나는 그저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나는 그저 사람들을 도울 거야"라고 말하는 이상한 거짓된 메시아적 콤플렉스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서 당신 자신은 당신의 안녕, 당신의 복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당신의 확고한 입장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은 모두 "오, 나는 그저 다른 사람의 관심사를 보고 있고, 비록 내가 망가지고 있지만, 그게 아니야"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심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도 살펴보세요. 그렇게 하면 진정한 일체감, 사랑, 관계가 배양되고 지역 사회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바울이 설교자들을 언급할 때 비슷한 언어를 사용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을 바울이 말한 것과 비교해 봅시다.

비교해 봅시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1장 15절과 17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시기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2장 3절과 4절에서는 이기적인 야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기적인 야망을 보세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나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른다”고 말할 때, 그가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할 때, 그는 이기적인 야망을 추구하는 것을 묵인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는 말한다. 그것은 너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고, 허영심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너희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라. 너희 각자가 자기 이익만을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돌보아라.

와우. 폴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면 매우 매우 흥미로워집니다. 그는 어디서 이걸 얻었을까요? 아마 지금이 제가 잠깐 멈춰서서 말해야 할 때일 겁니다.

돌아가서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찾을 때마다 밑줄을 긋고,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밑줄을 긋습니다. 자신의 성경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보기 흥해질 테니까요. 그리스도가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에게 밑줄을 긋는 것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밑줄로 긋는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 즉 그리스도의 동일한 마음을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것 속의 그리스도, 저것 속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모델로서, 그리고 저는 몇 분 후에 그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우리가 살펴볼 그리스도론적 찬송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에게 줄 것이고, 나는 복잡성과 우리가 이런 것들 중 일부를 어떻게 언급하는지, 그리고 학자들이 이런 것들 중 일부에 대해 말해야 하는 모든 이상한 것들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학자이고, 우리는 생계를 위해 추측해야 하며,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에서 성장하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진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 주제에 대한 몇 가지 학술적 추측을 상기시켜 줄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모델로 여겨질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내가 앞서 당신에게 준 네 가지 완전한 모델을 요약하면, 우리가 겸손을 통한 연합에 대한 호소,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방금 살펴보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3장,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적합한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5절이 대화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는 점이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5절의 일부 요소에 대해 논의하고 싶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전반적인 그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5절부터 살펴보죠. 5절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6절부터 선재하신 그리스도를 살펴볼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8절까지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는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보여드리죠. 저는 이것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데, 제가 무엇을 만들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이 찬송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자이고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가끔은 시도해봅니다.

제 학생들은 제가 예술가로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 상기시켜줍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제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읽어 보겠습니다. ESV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너희도 가지라.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붙잡을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으며 사람의 형체로 발견되셨으므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순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하늘과 땅과 땅의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방금 바울이 반대에 직면하여 교회를 연합시키고, 그들이 하나의 사고방식을 갖도록 부르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고, 1장 마지막에 로마에서 그가 겪고 있는 운명을 겪으면서도 중요한 교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2장의 시작 부분에서 바울이 실제로 2장의 긴 문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조건절로 그리스어로 쓰고, 그의 기쁨을 완전하게 만들 태도와 자질로 그들에게 도전하고,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연합하면 건설하고, 분열하면 무너진다. 세상이 그리스도가 일하는 것을 보려면 기독교 공동체가 필수적이다. 사도행전을 보고 살펴보자.

그리스도인들이 한곳에 모이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든, 성경 공부와 교제를 하든, 빵을 떼든, 글썩요, 정말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러한 연합을 일으키는 것은 악마의 의제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교회가 연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마도 우리도 그것을 우리의 야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참된 시민의 자질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행동을 본받거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세상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이런 연구를 계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배우고 성장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 제가 언급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엔지니어가 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감옥 서신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Dan Darko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복음에 합당한 행실, 빌립보서 1:26-2:5입니다.